| 국어는 이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①	2	35	⑤	2	35	②	2
2	②	2	19	④	2	36	②	3	36	⑤	2
3	①	3	20	④	2	37	④	2	37	③	2
4	②	2	21	③	3	38	③	2	38	①	2
5	⑤	2	22	②	2	39	④	2	39	①	3
6	④	2	23	②	3	40	②	2	40	②	2
7	②	2	24	①	2	41	⑤	2	41	⑤	3
8	④	3	25	⑤	2	42	①	2	42	④	2
9	③	2	26	④	2	43	②	2	43	②	2
10	①	2	27	④	2	44	①	2	44	④	2
11	③	2	28	③	2	45	③	3	45	③	2
12	①	2	29	①	2						
13	⑤	3	30	⑤	3						
14	①	2	31	②	2						
15	①	2	32	⑤	2						
16	④	2	33	③	2						
17	②	3	34	⑤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스키마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독서할 때 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왜 스키마가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글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독자가 알 만한 내용이나 중심 내용의 전달 흐름을 지체시킬 것이라 여겨지는 내용들을 생략할 수 있다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② 스키마는 개별 독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지식의 총체라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③ 스키마는 추론의 토대를 제공하여 글의 이해를 도우며, 글에 제시된 정보와 적절히 연결되어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④ 스키마는 정보의 선택, 수용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기여한다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2. [출제의도] 특정 개념을 활용한 독서 전략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스키마는 개별적인 책이나 글과 무관하게 개별 독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스키마에 구조화되어 많이 남아 있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읽을 어떤 글의 핵심 내용이 아니기 쉽다. 자신의 스키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특정 내용과 관련된 스키마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탓에 글의 핵심 내용에 비껴 있는 사소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스키마를 활용하되 글 자체에서 핵심 내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스키마는 독자에게 추론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글의 이해를 도우므로 스키마로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 것은 적절한 독서 전략이다. ③ 스키마는 독자가 글과 상호 작용 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와 스키마를 연결하며 읽는 것은 적절한 독서 전략이다. ④ 스키마는 앞으로 이어질 정보를 예측하는 데도 관여하므로 글의 내용이 향후 전개될 방향을 스키마로 예측하며 읽는 것은 적절한 독서 전략이다. ⑤ 내용의 전달 흐름을 지체시킬 것이라 여겨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도 독자는 스키마로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스키마를 토대로 이를 추론하며 읽는 것은 적절한 독서 전략이다.

3. [출제의도] <보기>의 관점에서 지문의 입장에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스키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배경지식이 독해를 방해하는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풀이] 지문에 제시된 입장은 확보된 스키마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스키마가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게 활성화되면 의미 구성을 방해하는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글의 맥락에 맞는 스키마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독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글 자체만으로는 숨겨진 정보를 읽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스키마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기>의 관점도 인정하고 있다. ③ 글을 읽기 전에 관련 지식을 떠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보기>에서 스키마의 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는 스키마의 잘못된 활성화를 문제 삼고 있다. ⑤ <보기>는 내용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스키마가 의미 구성을 방해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4 ~ 9] 인문-과학 통합

4.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생명 현상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기론에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생물학을 설명하거나 인체 해부를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기계론이 현대 생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가)는 생기론을 대체하는 관점으로서 기계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나)에서는 전산 생물학의 실험 사례들이 기계론의 허점을 보여 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③ (가)는 정신 작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기계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데카르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육체와 정신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실체라고 주장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환원주의의 입장에서 기계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계론 자체가 환원주의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④ (나)는 전산 생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해 유기체론이 힘을 얻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유기체론의 입장에서 생명 현상 탐구에 환원주의가 기여한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는 기계론에 입각한 실험 방식이 전산 생물학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기체론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특정 기관만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한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철학에서 연장성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속성으로, 형상을 지닌 물체와 마찬가지로 육체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② 생기론은 생물의 호흡을 대기 중에 충만해 있는 생기를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무생물은 형상과 질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생명체는 여기에 생명력 또는 활력을 의미하는 생기가 추가된다. ④ 환원주의는 물리·화학적 원리 외에 생명체에만 적용되는 자연법칙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6. [출제의도] 특정 입장을 토대로 특정 기관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속성을 지닌 실체인 정신과 연장성을 가진 실체인 육체를 구분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송과선이라는 통로를 매개로 정신이 육체를 통제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데카르트에 따르면 송과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체가 생체 리듬을 조절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체는 과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와 같기 때문이다. ② 데카르트는 육체와 정신이 하나의 실체로 묶여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 둘이 서로 다른 실체라고 보았다. 다만 송과선을 통해 정신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이다. ③ 정신 작용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정신이라는 실체이다. 송과선이 곧 정신인 것은 아니므로, 송과선이 정신 작용을 주된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송과선은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는 통로일 뿐, 송과선이 육체의 작용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실험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험에서는 근육 세포가 이온 채널에 세포 내의 전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 했다. 이온 채널이 근육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전산 생물학에서의 실험은 실제의 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모델링한 가상의 심장을 대상으로 그 작용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③ 전산 생물학에서의 실험을 통해 근육 세포가 이온 채널로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자 이온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 하부 구조인 이온 채널의 작동을 위해서는 상부 구조인 근육 세포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④ 기계론은 상부 구조의 작동이 하부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전산 생물학에서의 실험은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상호 작용 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기계론적 관점에 허점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⑤ 전산 생물학에서의 실험을 통해 근육 세포의 내부와 외부 간에 전위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온 채널이 열리거나 닫히는 작동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온들이 근육 세포에 드나드는 것이 전위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심장 근육 세포의 막전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 막전위의 변화에 따른 이온 채널의 개폐에 대한 지문의 설명을 바탕으로, 표에 나타난 각각의 시간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C는 심장이 수축된 상태에서 다시 이완되는 시간 구간이다. 즉 막전위가 낮아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탈분극 상태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변한다. 이때 칼슘 채널이 닫히면서 칼슘의 이동이 멈추게 되고, 대신 칼륨 채널이 다시 열리면서 칼륨이 근육 세포 외부로 빠져나간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막전위가 높아지면서 탈분극이 나타나며, B에서는 막전위가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탈분극이 유지된다. 하지만 C에서는 막전위가 대폭 낮아지면서 분극 상태가 된다. ② A에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근육 세포 내부로 나트륨이 대거 유입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때 칼륨 채널은 닫히므로, A에서 칼륨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B에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닫힌다. 다만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이 근육 세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맞다. ⑤ B에서 칼슘 채널이 열려 칼슘이 근육 세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C에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낳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③에 쓰인 '낳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0 ~ 14] 사회

10. [출제의도] 지문의 설명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법의 구성 요소를 일차 규칙과 이차 규칙으로, 이차 규칙을 다시 승인 규칙, 변경 규칙, 그리고 재판 규칙으로 구별하여 소개하고, 이들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 법을 일종의 규칙으로 보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법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규칙이라는 개념을 분석 도구로 끌어들이고 있다. ③ 법률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국가 기관의 역할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법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방식을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지 않다. ⑤ 헌법의 조문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관한 두 견해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차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므로, 일차 규칙에 이차 규칙의 제정 권한을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법률의 제정이나 운용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은 이차 규칙이다.

[오답풀이] ① 하트는 일차 규칙만 있다면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규칙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의무 위반자를 제재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차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이차 규칙이 일차 규칙과 결합하여 일차 규칙을 보완해야 법체계가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② 재판 규칙에는 법관의 자격, 법원의 종류 등을 정의하는 법원 조직법의 조항도 포함된다. ④ 일차 규칙은 법의 원시적 형태이며, 이차 규칙은 일차 규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에 도입되었다. ⑤ 일차 규칙만 있게 되면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지문의 표현에 부합하는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하트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행위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이차 규칙이 아니라 일차 규칙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결함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규칙을 수정할 수 없어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이차 규칙 중 변경 규칙이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해당한다. ③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에 대처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차 규칙 중 승인 규칙이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해당한다. ④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 내지 폐지의 과정에서 따라야 할 절차가 없는 것은 이차 규칙 중 변경 규칙이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해당한다. ⑤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이차 규칙 중 재판 규칙이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특정 법 조항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구체적인 형법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각 조항의 내용이 일차 규칙 혹은 이차 규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법률의 변경을 언급했다고 하여 무조건 이차 규칙 중의 변경 규칙이 아니며,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적용할 일차 규칙을 지정하는 법조문은 승인 규칙과 재판 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된 특정 상황에서 일차 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승인 규칙이다. 또한 형의 집행을 면하도록 하는 권한을 암묵적으로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 규칙이기도 하다. <보기>의 세 가지 형법 조항들은 모두 승인 규칙이면서 동시에 재판 규칙이다.

[오답풀이] ①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보기>의 형법 조항을 고려할 때 형사에 관한 승인 규칙이 관습법이나 조리를 일차 규칙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형법 제1조 제1항은 일차 규칙의 운용에 대한 규칙이므로 이차 규칙에 해당한다. 이차 규칙 중 승인 규칙에는 대개 권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법관이나 공무원에게 일차 규칙 적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③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언급된 구법과 신법은 일차 규칙에 해당하며, 또한 법률은 재판 규칙이 아니라 변경 규칙에 의해 그 제정 요건이 한정된다. ④ 법조문에 법률의 변경이 언급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변경 규칙인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승인 규칙이면서 재판 규칙이다.

14.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추궁(追窮)하다'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히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의 의미로 쓰인 ⓐ의 '묻다'와 바꿔 쓸 수 있다.

[15 ~ 17] 예술

1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둘째 문단에서는 추한 형상이 고대에서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예술에 표현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추한 형상이 낭만주의 시대에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고전주의는 외형적인 비례와 대칭성을 예술 창조의 규칙으로 삼았다. 낭만주의는 이러한 비례와 대칭성이 예술 작품이 감상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심정적 공명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③ 낭만주의 예술가였던 들라크루아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여인을 통해 강인한 인간 정신, 즉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④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 자체와 단호하게 결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와 같은 소재를 작품 속에 끌어들이기도 한다. ⑤ 인간의 육체를 정육점의 고깃덩이처럼 묘사한 그림은 아름다움과 결별하려는 현대 예술의 경향을 보여 준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대상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여 감상자의 깊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매개로 추한 형상을 활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는 사조였으므로, 이성을 중시하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 충실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인체 묘사의 조화와 균형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은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이 아니라 고전주의 예술이었다. ③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이 추한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추함의 미학을 추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들이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적 이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형보다 내면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⑤ 낭만주의 예술가였던 빅토르 위고는 추한 외모 속에 감추어진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이 숭고한 사랑의 감정은 외모가 아름다운 인물을 통해서만 표현된다고 믿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뭉크가 그의 작품 「절규」를 제작할 때의 체험이 소개되어 있다. 지문에 제시된 현대 미술에 대한 두 관점에 따라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에 따르면, 감각은 외부의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생리 현상이 아닌, 이성보다 선행하며 이성의 활동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체의 근원적 활동이다. 현대 예술은 바로 이러한 감각에 의해 외부의 현상을 독창적으로 묘사한다.

[오답풀이] ① ㉠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세계를 표현하는데,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이것이 추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관습적인 미의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③ 뭉크에게 해 질 녘의 구름이 핏물과 칼날처럼 보인 것은 일종의 환각이다. ㉠에 따르면 이러한 환각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④ ㉡에 따르면 예술의 추함은 세계의 추함을 고발하는 증언이며,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은 세계가 아름답지 않다는 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마비된 의식을 깨우치는 충격 효과의 수단이다. ⑤ ㉡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는 인간 소외나 개인의 원자화 같은 온갖 폐해가 엄존하며, 현대 예술은 추한 형상을 통해 이러한 세계의 진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뭉크가 고립감에 빠진 인간의 비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역시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 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홍계월전」**

1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주검이 산처럼 쌓였더라'라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B]는 '술법을 베푸니 경각에 대풍이 일어나며 검은 안개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할러라'라는 서술에 드러난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평국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는 적대자와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B]에는 조력자와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A]와 [B] 모두에서 인물의 뛰어난 지략을 드러내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A]는 평국과 맹길, [B]는 평국과 보국의 대결 장면을 통해 서사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자신의 '멱통'을 잡은 인물이 평국인 줄 모른 채 맹길이라 착각한 보국이 '크게 원수(평국)를 불러' 외친 말이다. 위기에 처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평국에 대한 원망 등이 담겨 있는 말로서, 자신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은 아니다.

[오답풀이] ⑤ ㉤은 보국이 울부짖으며 평국을 애타게 찾고 있을 때, '보국의 멱통을 잡'고 있던 평국이 바로 자신이 평국이라고 보국에게 밝히는 말이다. 평국이 ㉤을 말하며 박장대소한 문맥을 보면 이는 상대(보국)를 희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원수 평국의 말인 준총마이고, ⓑ는 적장 맹길의 말인 백총마이다. 평국이 ⓐ를 천자에게 양보하고 ⓑ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국은, 평국으로 보이는 자가 탄 말이 ⓐ가 아닌 ⓑ인 것을 보고 그 정체를 수상히 여겼다. 즉 ⓑ를 ⓐ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를 타고 있어야 할 평국이 ⓑ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맹길이 평국으로 변장한 것이라 의심한 것이다. 말을 알아보고 사람을 의심한 것이지, 말을 착각하여 사람을 의심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를 탄 평국이 ⓑ를 타고 달아나는 맹길을 추격하여 제압하는 장면을 볼 때, ⓐ가 ⓑ보다 더 빠르고 훌륭한 말임을 알 수 있다. 평국이 그런 ⓐ로는 '천자를 모시고' 자신은 ⓑ를 타는 것은 천자를 예우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⑤ ⓑ를 탄 평국이 '갑옷 위에 검은 군복을 입고' 보국에게 다가가자 보국은 상대가 평국임을 모르고 '적장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고 느낀 보국은 평국을 애타게 찾으며 '진중에 요란'하도록 '우는 소리'를 내었다. 이는 남성(보국)이 영웅적 능력을 지닌 여성(평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므로, 영웅적 여성의 존재가 봉건 질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④ 천자는 아내인 평국에게 패배하여 망신을 당한 보국에게 '지금은 전쟁 중이라 욕을 보았'다는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이 가부장적 질서를 넘어서는 것은 '전쟁 중'과 같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할 뿐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2 ~ 26] 고전시가-수필 통합

➔ **이덕일, 「우국가」 | 채득기, 「봉산곡」 | 김육, 「구루정기」**

2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독백적 진술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는 <제11수>의 '원컨대 이 뜻 아셔서 은혜 고루 베푸소서'와 같이 타인을 향한 당부의 말을 담고 있다. (참고로 <제11수>는 임금에게 백성이 겪는 고통을 알리면서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나)보다 (가)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제11수>에 '공부'와 '요역' 부담 때문에 '적자들이 배고파 설워하'는 상황, 즉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이 제시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현실이 덧없다는 것은 현실이 꿈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가)의 화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임금에게 당부하는 한편 '우국 상시'로 슬퍼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세자와 대군이 '이역의 풍상'을 겪는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신하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실이 덧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국가」의 작가가 임진왜란에 무관으로 참전해 공훈을 세웠다는 <보기>의 언급을 참조하면, 작가가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 일도 하옴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라는 시구는, 나라를 위한 자신의 기여가 남들에게 내세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겸양의 표현이거나, 혹은 자신이 애초에 이루고 싶었던 만큼 성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화자가 '반무'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나라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으며, (나)의 화자가 '심양'으로 떠나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 왕자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자신보다 나라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가)의 화자는 문관의 길을 가고자 했던 자신의 애초 진로를 바꾸었고 (나)의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던 삶을 포기한 것이다. ④ (나)의 화자는 '심양 가라'는 왕명을 받고 '잠시인들 머물쏜가'라며 '행장을 바삐 싸'는 모습을 보인다. 급히 서두르는 통에 행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여행 중 필요한 이부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채 (왕명을 받기 전 은거하던 시절에 입던) 겉옷인 '겹중치막'으로 '이불과 요를 겸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나랏일을 수행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자연에 은거하는) 생애가 자신의 분수에 맞으니 욕심 없고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담박'한 삶이 '내 분'에 어울린다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에서 '송국(소나무와 국화)'을 쓰다듬는 행동이나 '원학(원숭이와 학)'을 벗한다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하며 은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외로운 처지에 대한 한탄과는 무관하다. ③ ㉢은 '(나에게) 무슨 재덕(= 재주와 덕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있다고 나라에서 (나를) 알으시고'라는 것으로, 나라에서(즉, 임금이) 자신의 재덕을 알아주고 일을 맡긴 상황에 대해 겸양의 뜻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재주와 덕이 부족한 자신의 본모습을 남이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④ ㉣은 '강호'나 '교외'보다는 '이곳', 곧 자신이 지은 정자인 '구루정'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다. '구루정'은 도성 안에 있는 자신의 집 뒤에 지은 정자이므로,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을 도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는 없다. ⑤ ㉤은 '처사인 척 오만한 마음에 잠'기는 것을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벼슬아치로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때, '처사인 척' 자연만을 즐기며 지내는 생활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가까이하는 삶에 미련을 두는 태도로 볼 수 없다.

25.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백운봉'과 '인수봉'이 '아침과 저녁으로 안개와 구름이 변화함에 따라 혹 숨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B]의 서술에 따르면, 그 '봉우리'가 항상 안개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구절은 '안개와 구름'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혹은 '합해'져서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떨어'져서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하는 '봉우리'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오답풀이] ① 해당 구절은 높이 솟은 절벽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금빛 연꽃에 비유해 표현한 것이다. ② 해당 구절은 맑은 모래와 흰 돌이 굽이굽이 펼쳐진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백사장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감흥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③ 해당 구절은 '구루정'에서 보이는 '잠두봉'의 바위와 소나무에 대한 묘사이다. '잠두봉'은 '백운봉과 인수봉 등'에 비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위와 소나무까지 다 보이는 것인데, '우뚝한'에서 힘찬 아름다움을, '새겨 놓은 듯 꽂아 놓은 듯'에서 섬세한 아름다움을 떠올릴 수 있다. ④ '꿈틀대는 용과 웅크린 호랑이'는 '백악산과 낙산'을 빗댄 말로, 이 두 산이 '달리는 듯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고 하여 두 산의 기세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문맥으로 보아, '높은 곳에 처하여서는 위태로움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오른 입장에서 언제나 처신에 주의하여 위기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오만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태로움'은 국가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를 참조하면, 작가는 영의정의 직무를 수행하느라 자연을 즐기며 한가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호'와 '교외'에 '머물러 살 수는 없'다고 한 말은 작가의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② 작가는 도성 안에 있는 정자가 '종일 고요하여 저잣거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평생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곳'이라고 하면서 '구루정'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면, 정자가 도성 안에 있어서 먼 교외까지 드나드는 것에 비해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변 경치를 즐기며 마음을 달래려는 작가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③ 도성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다 높고 화려한 정자를 짓는 것이 꺼려졌다는 것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처신하려는 작가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⑤ '처음 벼슬을 하면 ~ 머리를 들지 않고 다닌다'라고 한 글은, 벼슬이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몸가짐에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작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정자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자신도 그 글의 깨우침처럼 처신을 삼가고자 하는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27 ~ 30] 현대소설

➔ 황순원, 「곡예사」

2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인물들의 말을 직접 인용 없이 '~라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와 같이 주로 간접 인용을 통해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서술자 '나'의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지문은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③ 지문은 전쟁 중 겪은 두 개의 체험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모두 서술자 '나'의 체험이다. ⑤ 지문의 두 체험은 서로 대조적이지 않다.

28. [출제의도]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앓는 사람의 나이와 같은 사람의 신발 한 짝을 가져다 어찌어찌하면, 그 앓는 사람의 병이 신발 주인에게로 옮아간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뒤 ㉠(선아의 신발이 사라진 사건)이 집주인의 소행이라고 내심 의심하며, 자기 집 아이가 귀하면 남의 집 아이도 귀할진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 '노여운 감정'을 느낀다. ㉠을 집주인의 소행일 리 없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처음에 '나'는 누가 신발을 훔쳐 갔다면 한 짝만 훔쳤을 리 없다며 그것을 '이 댁 셰퍼드란 놈'의 소행으로 여겼다. ④ '나'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주인집에 대해 의심과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주인집 애가 낫고 자신의 딸은 아무 탈이 없어서 이제 상황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사건의 실상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역시 그때 그 신발 한 짝은 이 댁 셰퍼드란 놈이 물어다 팽개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이는 주인집의 소행이라 의심한다고 해도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처지 때문에 애써 그렇게 믿고 넘어가려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가 '그처럼 날을 받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노파가 사는 이 댁에서, 그 같은 몰인정한 짓이야 꿈엔들 할까 보냐.'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말을 굳이 덧붙이는 것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⑤ 지문 마지막 문단의 '내 가슴속도 화끈~느꼈던 분노와는 또 달랐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불안스러운'은, 혹시라도 정말 주인집에서 일부러 신발 한 짝을 가져가서 그 탓에 딸 선아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담고 있는 말이고, '남몰래'는 그러한 자신의 불안과 주인집에 대한 의심을 얹혀사는 신세라 함부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병들어 누워 있는 아이를 치료할 방도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③ 주인 노파는 '나'의 가족들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정원'에 '거적닢'을 쳐 변소를 만들어 사용하게끔 '분부를 해 놓았'었다. 그런데 '예의 노파 한 패'는 그 상황을 모른 채 '그중 한 노파'가 '뜰 구석 다복솔 뒤에 감추인 거적닢', 즉 뜰에 마련한 변소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정원에 변소를 만들었다며 주인 노파를 찾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것이다. 주인 노파는 체면 때문에 차마 자기가 시킨 일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지 떼란 할 수 없다'며 실컷 헐뜯는 말을 한 뒤 '나'의 가족들을 내쫓기로 한다. 하지만 차마 자기가 만들라고 시킨 변소 때문에 말썽이 나서 나가라는 말은 할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구공탄을 들이기로 했으므로 방을 비워 달라고 둘러대는 것이다. 따라서 ⓑ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함축된 말이라 볼 수 있고, ⓒ는 주인 노파가 그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나'의 가족들에 대해 다소나마 민망한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나'가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최대한 피할 도리를 강구하'려 하는 것은, 인물로서의 '나'가 오갈 데 없는 자기 가족의 처지 때문에 집주인의 횡포에도 애써 화를 억누르면서 최대한 안 나가고 버티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소설 창작 과정에서 체험의 미적 형상화를 위해 감정을 절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보기>에서 설명한 미적 형상화를 위한 거리 두기는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미적으로 형상화할 때, 즉 작품을 쓸 때에 그 체험에 대해 거리를 둔다는 의미이지, 체험 당시의 현실 상황 속에 한 인물로서 참여해 있는 작가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 시선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주인 노파는 '나'의 가족에게 집주인 가족이 쓰는 '안뜰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뜰 구석 다복솔 뒤'에 '거적닢'을 치고 배변을 해결하라고 '분부'를 했다. '나'와 가족들은 전쟁으로 인해 남의 집에 얹혀살면서,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피난민 신세에 처해 있는 것이다. ② '나'는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주인 노파의 말을 주인 노파 그 자신이 '몸소 실천'했다고 말한다. 노파 자신이 '안뜰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잊지 않았고, 또 '나'의 가족들이 거처하는 곳이 방이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헛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반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안뜰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그것이 화근이 되자 '나'의 가족을 내쫓는다는 점에서, 또 아주 누추한 거처를 내어 주었으면서도 그마저도 고작 '구공탄'을 들이겠다고 사람을 내쫓는다는 점에서, '나'는 주인 노파에 대해 '인간다운 행실'을 '몸소 실천해' 보인다며 비아냥대고 있는 것이다. ③ '변호사 댁 헛간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나'는 몹시도 비참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러한 감정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라는 서술로 자기 가족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울분을 토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며 체험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1 ~ 34] 현대시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최영철, 「시여 시여」**

31.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너도 ~ 저자로 나가 뒤섞여 보아야 하리라', '겨우 찬밥 한 그릇 얻어 ~ 눈물로 삼켜 보아야 하리라' 등 당위를 나타내는 진술에서, '시여 네가 오래 사는 길이다/네 어깨 갈수록 넓어지고 그 속에 내가 묻히는 길이다.'와 같은 단정적인 진술로의 전환을 통해, '너'가 시련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는 당위를 나타내는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④ (가)에서 의문문은 첫 행에서 한 번만 사용되었다. (나)의 마지막 두 행은 예언적 어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시련을 통해 '너'가 성장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너'의 실제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2.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시구를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온유하던 얼굴'과 '갈수록 거칠고 볼품없어'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나, '바라보는 나는 갈기갈기 찢어지지만'은 '너'가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심적 고통을 나타낸 것이지 화자의 후회나 자책과는 무관하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여 네가 오래 사는 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화자는 '너'에게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에 대해 후회와 자책을 느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질문의 주체를 '누군가'라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그 질문이 화자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③ ㉢의 '생각나고 있었다'라는 진행형 서술어는, 화자에게 생겨난 깨달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이 깨달음이란 곧 자신이 하루 동안 만난 선한 사람들(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만나 온 선한 사람들)이 곧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것이다. ④ ㉣은 '너'가 고난을 겪는 장면을 '각설이 타령'을 하다가 '문전 박대'를 당하는 모습, '찬밥 한 그릇'을 얻는 모습,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너'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그런'과 ⓑ의 '그렇게'는 모두, 본디는 앞서 언급된 대상을 받아 진술하는 지시어이다. 그런데 (가)의 '그런 사람들'과 (나)의 '그렇게 말해 놓고'는 모두 앞서 언급된 바 없는 것이다. ⓐ와 ⓑ는 이처럼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지시어의 사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는 거칠고 모진 말을 했음을 환기하므로, 뒤에 이어지는 '마음이 아프구나'와 연결하여 보면 진술 내용과 반대되는 태도를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는 이와 무관하다. ④ ⓐ는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결론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화자와 대상 사이의 갈등은 (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는 (나)의 첫 구절로서 시상을 여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는 '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첫 구절로서 시상을 급격하게 전환시켜 이어질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시상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시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 모습은 '엄청난 고생 되어도/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있'으며 '슬기롭게 사는' 것이지 '세상' 자체는 아니다. 또한 (나)에서 '세상의 시궁창'은 시가 성숙하기 위해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삶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를 통해 이겨 내야 할 부정적 현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화자가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인 화자가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은 '시인이 못 되므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화자가 스스로를 시인의 자격에 미달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시인의 자격을 시를 쓰는 능력 이상의 것에서 찾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엄청난 고생 되어도/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있'으며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에게 시란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결부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말은 곧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며, 그 사람들의 삶이 시라는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는 시보다는 삶의 자세를 더 중시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그 속에 내가 묻히는 길이다'라는 것은, 시인인 자신이 자신의 창작물인 시에 묻힌다는 발상을 담은 말로서, 시인인 자신보다 '시'를 더 큰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을 내포한 말이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배다리 설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며 배다리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나타난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을 보여 준 다음 '보시는 것처럼 ~ 건현이라고 하는데요'라고 배의 흘수와 건현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 뒤 배다리에 쓰인 배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배다리에 쓰였던 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정조가 화성 행차 시에 배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⑤ 발표자는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배다리의 인접한 배들을 연결했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보고 청중의 질문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의 답변을 보면 '6,000여 명의 사람과 1,400여 필의 말이 배다리를 이용해 강을 건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의 질문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배다리를 건넜'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38.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희'의 ㉢의 발화는 앞서 '윤아'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방송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그 이유를 짐작하며 이야기하는 발화이다. '윤아'가 말한 의도 자체에 대해 추론하는 발화가 아니다.

39.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의 원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윤아'는 '손을 내저으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민재'의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라는 말에 대해 '아니야.'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일정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리 확인도 안 하고 부탁 먼저 했어.'라고 하여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이 학생의 초고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2문단의 둘째 문장에는 개인 방송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활동 1]에 언급된 뉴스 보도를 활용한 내용이 아니다. (가)에서 '윤아'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강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41. [출제의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비평문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할 근거로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고쳐 쓴 글에 반영된 학생들의 조언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희'가 작성한 초고인 [C]와 고쳐 쓴 글인 <보기>를 비교해 보면 [C]에 나타나지 않았던 '정부는'이 <보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해 나가야 하는 주체인 '정부'가 드러나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3～45] 작문

43. [출제의도]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농작물 육종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육종 기술이 발달해 온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4. [출제의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생님의 조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 제시된 농작물 육종이 중요한 이유들' 세 가지를 포함하고 '육종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글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의 인터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이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산 품종이었다가 상황이 역전되어, 현재는 대부분 국내산 품종이 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즉 딸기의 육종을 통해 국내산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딸기의 품종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인 사례인 것이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관점에서' 농작물 육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2문단에 이를 추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39] 언어

35.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의미 자질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따르면 하의어는 상의어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면서 상의어보다 더 많은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기'의 하의어인 '야구'는 '구기'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면서도 '구기'보다는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을 것이다.

36. [출제의도] 반의어의 종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출석하다－결석하다'를 보면, '출석하면서 결석한 일'은 없으며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석하지 않은 일'도 없으므로,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한편 '깊다－얕다'는 '깊다'가 '얕지 않다'를 함의하지만, '얕지 않다'가 '깊다'를 함의하지 않아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일방적으로 함의할 뿐만 아니라, '깊거나 얕은 정도'를 나타낼 때에는 '깊이'가 선택되어 쓰이는 경향을 보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풀이] ① '멀다－가깝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며, '(과녁에) 빗나가다－맞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덥다－춥다'와 '길다－짧다'는 모두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있다－없다'와 '금속－비금속'은 모두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쉽다－어렵다'와 '어둡다－밝다'는 모두 ㉡에 해당하는 예이다.

37.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를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현대어 풀이를 보면 ㉮와 ㉯에는 파생 명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에는 용언의 어간 '높－'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노픽'가, ㉯에는 용언의 어간 '넙－'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 '너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로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한편 현대어 풀이를 보면 ㉰와 ㉱에는 파생 부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에는 용언의 어간 '길－'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기리'가, ㉱에는 용언의 어간 '높－'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노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에 따른 음운의 개수 변화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댓잎색→[댄닙쌕]'은 '잎'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었으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 ㉠에 해당하는 예이며, '뒤삶지→[뒤삼찌]'는 '삶'의 'ㄺ' 중 'ㄹ'이 탈락하였으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 ㉡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풀이] ② '물여우→[물려우]'는 '여'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어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 ㉠에 해당하는 예이지만, '삯일꾼→[상닐꾼]'은 '삯'의 'ㅄ' 중 'ㅅ'이 탈락하고, '일'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어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39. [출제의도] 문장 성분의 종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안긴문장인 '네가 원했던'이 주성분인 '물건이'를 꾸며 주고 있으나, ㉡에는 주성분을 꾸며 주는 안긴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의 안긴문장 '수업이 끝나기'는 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며,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③ ㉡에서는 안긴문장인 '수업이 끝나기'가 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필수 성분인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에는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에서 명사 '약속'은 홀로 의존 명사 '때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명사가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0～42] 매체

40. [출제의도] 제시된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의 내용 확인과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은 같은 웹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댓글을 통해 기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사의 내용을 전파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보도 윤리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에는 공유 자전거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를 지정 거치대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보행자의 입장과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요금 할인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운영 업체 측의 입장이 각각 제시되었다. 이는 공유 자전거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제시된 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로 재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메모에 따르면 넷째 카드에는 이용자들이 공유 자전거의 지정 거치대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표지판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④에는 지정 거치대의 위치와 관련된 지도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3～45] 매체－언어 통합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텔레비전 뉴스로, '[장면 2]'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로, 영상 자료를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 등이 두드러지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재 현장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가)가 사실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②)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 제시된 상가 이용객의 인터뷰를 화재 사건에 대한 상가 이용객의 반응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한정된 범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 뉴스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최근에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④ (가)와 (나) 모두 수용자가 제기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정보를 소방 당국과의 인터뷰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닌 (가)이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진화되었고(진화되다)'라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진화'된 대상인 '불길'과 '진화'한 주체인 '소방 당국'이 모두 드러나 있다.

45. [출제의도]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재 경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유형의 비상벨 소리들을 음향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음향으로 전달하고 있는 비상벨 소리는 '화재 경보 비상벨 소리' 하나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